



스마트폰 딸노릇하기

북한 초국가적 가족 실천과 이동전화

채석진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Smartphone Daughtering*, **

North Korean Transnational Family Practices and Mobile Phones

Suk Jin Chae***

(Assistant Professor, Chosun University)

This article explores how North Korean migrants living in South Korea maintain intimate relationships with their families in North Korea via smartphone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acts of transnational communication between North Korean migrants and their family members left behind in North Korea. In this article, transnational communication refers to the flow of ideas, information, goods, money, and emotion. The existing research on contemporary transnational migration has shown the feminization of migration and family separation as one of the social costs of migration. Studies have shown that transnational migrants have developed some solutions for responding to the care needs of left-behind family members and the maintenance of relationships within such transnational families depends heavily on mediated distant communication. In addition, studies have revealed that despite their physical absence due to migration, the gendered family roles of women as wives, mothers, and daughters persist in those mediated family practices. Similarly, given the legal impediments to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the North Korean migrants have developed informal or illegal solutions to continue emotional and practical care for their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 Recent technological developments enable them to create new forms of

* 이 논문은 한국언론학회 2023 봄철 정기술대회에서 언론학보 우수논문상에 선정되었습니다.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9S1A5B5A01042817)(이 연구는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에 큰 학문적 빛을 지고 있다. 특히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북한 연구 전문가로서의 통찰을 너그럽게 나누어주며 몰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김성경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완성도 있는 논문이 되도록 도와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님께도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이 연구에 참여해서 가까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주신 북한 이주 여성분들과 지역 여성 지원 센터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이 논문은 한국언론학회 2023년 봄철 정기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 sjchae@chosun.ac.kr

social interacti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that transcend state borders, which are largely mediated by smartphones.

Drawing on a two-year ethnographic fieldwork,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how North Korean immigrants use smartphones to maintain transnational family relationships. In doing so, this article understands the use of smartphones by North Korean migrants as an integral part of their transnational family practices and transnational communication. This article consists of three sections. It first reviews the existing ethnographic research on the link between transnational family practices and media use. Then it delivers the story of Mi-young, a North Korean female migrant, who has been maintaining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her elderly parents and younger brother living in North Korea in a situation of extended absence. Mi-young's transnational family practices have been interwoven with her attempts to reduce the vulnerability of life. Although her decision to migrate is made mainly to reduce the economic vulnerability of her family, her physical absence significantly limits her ability to offer daily practical care for them. Mi-Young has been trying to deal with this contradiction by performing emotional and economic support from a distance with her smartphones, which I term 'smartphone daughtering' in this article.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acts of transnational daughterhood, which have been overlooked in transnational family communication research with an overwhelming interest in motherhood.

Keywords: Smartphones, Transnational Families, Transnational Communication, North Korean Migrant Women, Daughtering

1. 들어가며: 북한 초국가적 가족 실천과 스마트폰

북한은 흔히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로 인식된다. 이러한 북한에 관한 지배적 인식 속에서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북한 사회의 주요한 변화들을 간과해왔다. 그 가운데 하나는 북한에서 해외 노동 이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다른 나라에 떨어져 살고 있는 ‘초국가적 가족’(transnational families)이 확산해온 것이다. 북한에서 이주 노동의 확산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외국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주요한 외화벌이 전략으로 노동자를 중국, 러시아, 쿠웨이트 등의 국가에 파견해왔는데, 김정은 시대에 그 규모가 증가하여 대략 5만에서 1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박영자 외, 2018, 22쪽).¹⁾ 다른 하나는 비공식적인 경로로 북한을 떠나서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이다. 흔히 ‘탈북민’으로 불리는 이들은 1990년대 경제 위기 이후 급증하였다가 차츰 줄었지만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²⁾ 이들은 중국에 거주하거나 중국을 경유하여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데, 한국은 비공식적인 노동 이주의 주요 정착지 가운데 하나이다.³⁾

노동 이주의 확산은 비단 북한만의 현상은 아니다. 21세기 초 전 세계적으로 노동 이주가 확산하였고(Castles, Miller, & Ammendola, 2003),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함의를 이해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들은 현대 노동 이주의 특성으로 여성이 이주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 현상과 이로 인한 가족 분리와 돌봄 위기 문제를 강조해왔다(Ehrenreich & Hochschild, 2003; Parrenas, 2005a, 2005b).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디어를 매개로 수행하는 원거리 가족 실천이 확산해왔음을 보여준다(Madianou & Miller, 2013). 이러한 특성은 북한 노동 이주 경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국에 들어온 북한 출신 이주민(이후 ‘북한 이주민

1) 김정은 정권 시기 심화된 국제적인 경제 제재 속에서 경제 제재 대상이 아닌 해외노동자 파견이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이 되었다. 이후 강화된 국제 제재로 2019년까지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본국 송환하도록 하였다(Koen & Beom, 2020). 북한 사람들은 해외 파견을 목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여 선호하여 선발 과정에 경쟁이 치열한데, 북한 당국은 주로 성분(토대), 당원 여부, 범죄 전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박영자 외, 2018, 22쪽). 성분은 북한 사회의 계급 체계이다(Collins, 2012).

2) 관련 연구들은 1990년대 경제위기와 연이은 홍수와 가뭄은 대량 기근을 가져와 3백만명의 사람들이 관련하여 죽고, 25만명 이상이 중국 국경을 통해서 북한을 나온 것으로 추측한다(Draudt, 2022, p. 4). 흔히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 동안 중국 국경을 통한 대량 탈출이 시작되며 본격적인 비공식적인 이주가 진행되었다.

3) 통일부(2022)의 최근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 이주민은 1990년대부터 2020년까지 3만 3천여명이 입국하였다. 입국자 수는 2000년대 이후 증가해서 2003-2011년에는 연간 2천-3천명에 달했다가, 최근에는 2020년에 200명대, 2021년과 2022년에는 60명대로 급감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의 국경이 통제된 영향으로 보인다.

4)의 대다수는 여성이고, 5) 이들은 남북한 사이 공식적인 연결망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비공식적인 초국가적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발전시켜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정서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왔다(김성경, 2017, 2023; 박성철, 2022; 이지연, 2019; 정은이, 2017; 최희, 2020, 2021). 최근 몇 년 사이 경제학, 사회학, 북한학 분야에서 북한 이주민의 북한 송금 방식과 경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고(박성철, 2021; 이지연, 2019; 정은이, 2017; 최희, 2021), 이주 여성과 북한에 남아있는 자녀 관계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어왔다(김성경, 2017, 2023). 이러한 연구들은 미디어가 북한 초국가적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초국가적 가족실천을 매개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속성과 과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북한 연구와 미디어 연구의 학제간 연구를 시도하여 이러한 공백을 채우고자 한다.

이 글은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주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어떻게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탐색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이주민들의 초국가적 커뮤니케이션을 가족 실천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고, 이를 매개하는 미디어의 속성이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이 글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2년간 진행한 북한 스마트폰의 사회기술적 형성에 관한 연구의 일부를 발전시킨 것이다. 전체 연구는 스마트폰 기술이 북한이라는 특수한 사회에서 어떻게 다르게 채택되고 변형되어 사용되는지를 탐사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기술의 확산을 일방향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술이 사용되는 공간에 따라 끊임없이 조정되며 그 효과 또한 상이함을 강조하는 인류학적인 기술 연구의 입장을 채택한 것이다(Barry, 2013; Horst and Miller, 2005; Latour, 2005; Miller, 1987; Miller and Slater, 2000). 이 연구는 북한 스마트폰의 사회기술적 형성 과정을 크게 북한 당국이 주도하는 것과 일반 사람들의 실천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 둘의 상호작용성을 살펴보았다. 전자가 북한 당국이 생산하는 공식적인 스마트폰의 기술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후자는 북한 일반인들의 비공식적인 스마트폰 사용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북한 스마트폰과 관련된 광범위한 문헌 연구(국내외 학술논문과 언론 보도 및 북한 자료 등)를 수행하였고, 관련 전문가 및 북한

4) 북한에서 이주하여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은 흔히 '북한이탈주민' 혹은 '탈북민'이라 불린다. 이러한 용어들은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을 선택했다는 이데올로기적인 호명을 담고 있다. 이 글은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이동이 이데올로기적인 동기보다 다른 국적의 노동 이주민과 유사하게 더 나은 노동 기회를 얻고자 하는 시도 속에서 수행되는 것에 주목하여 '북한 출신 이주민'으로 칭한다.

5) 2022년 기준 전체 북한 이주민 가운데 70% 이상이 여성이고, 여성 입국자 비율은 2000년대 후반 이후 75% 이상을 차지하였고, 2015년-2019년에는 80%를 넘었다(통일부, 2022).

이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 글은 일반 사람들의 비공식적인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연구의 일부로,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주민의 스마트폰 사용을 초국가적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각, 정보, 상품, 돈, 그리고 감정의 흐름”인 초국가적 커뮤니케이션(transnational communication)(Parrenas, 2005a, p. 317)의 일부로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초국가적 가족 실천과 미디어 사용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들을 살펴보고, 북한 여성 이주민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한 북한 여성 이주민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스마트폰을 매개로 수행되고 있는 초국가적 가족 실천의 속성과 양식을 탐색한다. 이 과정에서 이 글은 그동안 ‘엄마노릇하기’를 중심으로 진행된 초국가적 가족 실천 연구 경향 속에서 간과되었던 ‘딸노릇하기’를 드러내고, 언어적·정서적 교환만이 아니라 경제적 교환을 주요한 초국가적 가족 실천으로 조명한다. 이 글은 북한 초국가적 가족들에게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이 공식적 통신망의 제약을 우회하는 비공식적인 연결망의 확장이자, 정부의 기술적 감시의 확장으로 경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이주 여성이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초국가적 이주 속에서 마주하는 딸노릇하기의 모순을 협상하고 있는지 기술한다.

2. 초국가적 가족 실천과 미디어

1) 초국가적 가족의 미디어 사용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들

초국가적 가족 실천에 관한 인류학적인 연구는 노동의 국제적 분업과 맞물려 노동 이주가 급증하였던 200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비(Harvey, 2005)가 지적하듯이,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은 노동의 국제적 분업 과정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고소득 국가의 기업들이 더 값싼 노동력을 찾아 저소득 국가로 생산 설비를 이전하는 한편, 저소득 국가의 노동자들은 더 나은 임금과 미래를 찾아 고소득 국가로 이주하였다.

주요 연구들은 현대 노동 이주의 특성으로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초국가적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을 보여준다. ‘이주의 여성화’는 이주 노동의 대다수를 여성이 차지하는 현상으로,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여성들의 이주로 인한 ‘돌봄 위기’를 중심으로 논의해왔다(Ehrenreich & Hochschild, 2003; Hochschild, 2000; Parrenas, 2001). 초기 연구들은 초국가적 이주로 인하여 가족 관계에서의 친밀성이 약화됨을 강조하였다(Hochschild, 2000; Parrenas, 2005a, 2005b). 대표적인 예로, 미국 사회학자 혹스차일드는 부유한 나라 여성의 아이들을 돌

보는 돌봄노동자로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이 연쇄적으로 이주하며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돌봄의 부재 속에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글로벌 돌봄 체인’의 불평등을 지적한다. 이러한 주장은 이주 여성의 물리적 부재가 곧 가족 관계의 친밀성 및 돌봄의 부재로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와 상반되게, 패레나스(Parrenas, 2005a, 2005b)는 필리핀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류학적인 연구에서⁶⁾ 이들이 초국가적 이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엄마노릇하기’를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초국가적 가족 실천에서 송금은 ‘엄마노릇하기’의 주요한 부분이었는데, 필리핀 초국가적 가족 실천에 관한 맥케이(McKay, 2007)의 연구도 송금을 통해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의사소통을 통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 필리핀 친족 관계에서 친밀성을 강화하는 주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맥케이는 경제적 지원이 정서적 친밀성과 분리되는 것이 아닌, 내부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한다(McKay, 2007, p. 188). 이러한 연구들은 미디어를 매개로 수행하는 원거리 커뮤니케이션이 초국가적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데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매개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사용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와 분석은 부족하였다.

초국가적 가족들의 매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2010년대 들어 ‘물질 문화’(material culture) 연구자들이 발전시켰다. 일례로, 마디아노우와 밀러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변화하는 지배적 매체의 물질성에 따라 초국가적 가족 관계의 친밀성이 수행되고 경험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보여준다(Madianou & Miller, 2011a, 2011b, 2013).⁷⁾ 1990년대까지 초국가적 커뮤니케이션의 지배적 매체였던 편지와 카세트테이프의 경험에 관한 연구는 글과 음성을 전달하는 매체의 상이한 물질성(materiality)이 어떻게 상이한 친밀성 수행과 결합되었는지 보여준다(Madianou & Miller, 2011a). 일례로, 한 남성 이주민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때 거의 친밀함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떨어져 살면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가족들에 대한 친밀함을 더 많이 표현하였다. 또 다른 연구(Madianou & Miller, 2011b)

6) 필리핀은 1970년대부터 전 세계에 돌봄 노동과 가사 노동을 담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온 나라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을 대표한다. 초국가적 가족 실천에 관한 주요 연구는 미국과 영국에 거주하는 학자들이 자신의 나라에 이주한 필리핀 여성 이주민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Castles et al., 2003; Ehrenreich & Hochschild, 2003; Parrenas, 2005a, 2005b).

7) 이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영국의 런던과 캠브리지에서 1년간 민속지학적 연구를 수행하며 필리핀 여성들을 인터뷰했고, 이들이 두고 온 자녀들을 대상으로 필리핀에서 민속지학적 연구를 수행했다.

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보급된 값싼 국제 전화, 인터넷, 이동전화의 물질성이 초국가적 가족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준다. 값싼 국제전화, 인터넷, 이동전화의 확산은 무엇보다 초국가적 커뮤니케이션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였다. 이는 멀리 떨어져 있는 엄마들이 원거리에서 세세하게 본국에 남아 있는 자녀들의 일상을 조정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이 점에서 밴시아와 올리베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보편화와 함께 변화한 이주의 특성을 '전자 이주'(e-migrant)로 표현한다(Vancea & Olivera, 2013). 미디어노와와 밀리에 따르면, 이동전화의 보급은 이주 여성들의 '부모노릇하기'(parenting) 실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엄마들이 자녀들의 삶에 관여하는 것을 촉진하였고, 이전의 편지나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만 불가능했던 가사일을 세세하게 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물리적으로는 부재하지만 원거리에서 부모노릇하기와 감정 노동을 수행하며,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직장에서 얻는 존경과 가치라는 상반된 가치를 이동전화를 가지고 협상하고 있었다(Madianou & Miller, 2011b, p. 463).

이후 진행된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이 초국가적 가족 커뮤니케이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강조한다(e.g., Baldassar, 2016; Kara & Wrede, 2022; King-O'Riain, 2015; Wilding, 2006). 윌딩은 정보통신 기술이 시공간을 가로질러 초국가적 가족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유된 사회적 필드'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킹-오리아인은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스카이프(Skype)를 매개로 초국가적인 연결성을 유지하며 시간적 지리적 거리를 가로질러 친밀감을 유지하는 '감정적 스트리밍(emotional streaming)'의 공간을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디아노우(Madianou, 2016)는 런던에 거주하는 필리핀 초국가적 가족들이 소셜 미디어(SNS: social networking site)를 매개로 항시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양가적인 감정을 형성하고 있음을 '모호한 공존'(ambient co-presence)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보통신기술의 확산 속에서 '강한 친밀감의 형성은 대면 상호작용을 요구한다는 통념이 도전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구축하는 연결성이 시차, 나이, 교육, 경제적 자원에 따라 상이하게 경험되고 있음을 강조한다(Kara & Wrede, 2022, p. 5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들은 '항시 접속이라는 기술적 환경을 정보통신기술이 제공하는 보편적인 조건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연구들이 주로 서구 사회의 기술적 환경 속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들이 보여주는 또 다른 주요한 측면은 초국가적인 가족 실천이 젠더화된 역할과 기대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수행되고 있는 점이다(e.g., Kara & Wrede, 2022; Parrenas, 2005a, 2005b). 카라와 위레드가 지적하듯, "아내, 엄마, 딸이라는 여성들의 젠더화된 가족 지

위는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 있을 것’(being there)에 대한 기대와 결합하여 남아있다. 이것은 단지 말과 몸짓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지와 돌봄을 가까이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Kara & Wrede, 2022, p. 523). 초국가적 가족 실천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엄마들의 부모 노릇하기(mothering/parenting)를 중심으로 젠더화된 가족 실천을 드러내왔는데, 최근 보다 다양한 젠더화된 가족 실천에 대한 연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주 여성들 가운데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여성들의 증가하면서, 본국에 남아 있는 나이든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주요한 가족 실천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례로, 카라와 위레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거주하는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주 여성들을 인터뷰하여, 영속적인 헤어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부모에 대한 감정적이고 도덕적인 역동을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역동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다양한 초국가적 커뮤니케이션 실천을 수행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 연구는 세 여성의 사례를 보여주는데, 한 여성은 본국에 있는 부모를 걱정 시키지 않기 위해서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공유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를 ‘얇게 만드는’ 실천을 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가족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었다. 다른 여성은 부모의 ‘방문’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방문을 계기로 더욱 강화된 매개된 연결성을 형성하였다. 마지막 여성은 매개된 연결성이 가족 관계에서 ‘건강한 거리’(health distance)를 제공한 사례로, 제한된 가족 시간이 의사소통을 더욱 직접적인 방식으로 만들고, 그 가치를 더욱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매개된 초국가적 가족 실천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들은 상이한 경험들과 실천들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주 여성들이 마주하는 취약한 노동 조건은 이들이 초국가적인 이주를 결심하게 된 주요한 계기이자, 초국가적 가족 실천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Kara & Wrede, 2022, p. 523; Parrenas, 2005b).

2) 북한 초국가적 가족과 이동전화: 기업가적 여성 주체의 확산

기존 연구들은 이동전화의 초국가적 가족의 확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는데, 북한의 초국가적 가족 형성 과정도 이동전화의 확산과 긴밀하게 맞물려 진행되었다. 2000년대까지 북한은 다른 저소득 국가와 마찬가지로 유선 전화(유선 인터넷망 보급을 위한 기반시설)와 이동전화 보급이 낮았다(김봉식, 2017). 북한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정보통신기술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2002년에 처음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얼마되지 않아 중단하였다. 본격적인 이동전화 서비스는 2008년 이집트 오라스콤과 북한 체신부가 함께 ‘고려링크’를 설립하면서 시작하였다(오라스콤 75%, 북한 25%). 고려링크는 2011년에 인구의 94%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Kim, 2014). 북한 정부는 2014년 오라스콤과의 분쟁을 겪은

후 2015년 별도로 국영 서비스인 ‘강성’을 시작하여, 현재 북한에서는 2개의 3G 통신망이 운영되고 있다(Williams & Schiess, 2022). 합영기업인 고려링크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국영기업인 강성은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0년대 들어서 북한의 이동전화 사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⁸⁾ 이동전화 사용의 폭발은 북한 정부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급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2010년 중반 이후 북한 기업의 상표를 달고 다양한 스마트폰이 보급되며 이동전화는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활동을 매개하는 지배적인 매체로 자리 잡았다(Kim, 2020; Williams & Schiess, 2022).⁹⁾ 주목할 점은 북한의 공식적인 이동전화망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국내 통신 용도로 제한되어, 초국가적 통신(문자, 음성 통화, 인터넷 연결 포함)을 차단하고 있는 점이다(Fang, 2016; Kim, 2014, 2019; Williams, 2019). 이러한 기술적 특수성은 북한의 초국가적 가족 실천을 다른 나라의 경우와 차별되게 한다. 기존 연구들은 서구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초국가적인 정보통신기술 연결망을 기반으로 ‘항시 접속’을 주요한 초국가적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속성으로 제시하지만, 북한의 기술적 환경은 이주한 가족들이 외국에서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연락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외국으로 일하러 가는 엄마들에게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이동전화사용을 장려하는 것(Madianou & Miller, 2011b)과 상반된 모습이다.

하지만 공식적인 통신망의 제약이 북한에서 초국가적 통신의 부재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에서 이동전화의 확산은 실질적으로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며 북한 사회에서 수많은 이주와 초국가적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해왔다. 북한에서 비공식적인 이동전화 사용은 1990년대 북한과 중국 간의 밀수 무역을 하기 위해 사용되면서 광범위하게 확산하였다. 다른 구소련연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북한 또한 소련연방 해체의 여파 속에서, 김일성 사망, 자연재해 등이 겹치는 상황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다(Draudt, 2022; Kim, 2020; Koen & Beom, 2020, p. 7). 당시 북한의 국가 배급 체계가 붕괴하며 많은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비공식적인 시장에서 밀수를 통해서 조달하였다. 특히 중국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오래된 연결망은 주요한 식량과 물품의 공급망으로 작동하였고, 중국을 통해 비공식적

8) 일례로 고려링크 가입자수는 2008년 1694명에 그쳤으니, 2012년 2백만 명, 2015년 300만명, 2016년 379만명으로 급증하였고(Kim, 2019), 2022년에는 대략 6백만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Williams & Schiess, 2022). 강성 가입자수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고려링크와 강성 가입자 수를 합하면 공식적인 이동전화 서비스 사용자의 수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Williams & Schiess, 2022).

9) 북한이 자체 생산한다고 선전하고 있는 이동전화의 기술적 구성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에서 별도로 분석할 것이다.

으로 구한 물품을 북한의 비공식 시장에서 팔아서 생활을 유지하는 비공식적인 경제 활동이 활발해졌다(Draudt, 2022, pp. 4-6). 중국 이동전화는 북한의 비공식 경제 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비공식적으로 구한 중국 이동전화를 활용하여 중국 쪽 무역상대(‘대방’)와 소통하는 초국적 커뮤니케이션 연결망이 구축되었고, 이러한 연결망은 추후에 북한 여성들이 중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통로가 되었다(김성경, 2023). 이러한 비공식적인 경제 활동의 확산은 북한 사회의 실질적인 시장화를 추진하였다(Draudt, 2022; Koen & Beom, 2020; Mun & Jung, 2017).

북한의 시장화 과정은 기업가적 주체의 확산을 동반하였다(Draudt, 2022). 2002년 북한 정부가 비공식적인 시장(‘장마당’)을 허용하며 전국적인 규모의 공식적인 시장이 형성되었다. 시장에서의 경제 활동을 기반으로 ‘돈주’라는 기업가 계층의 사람들이 형성되었는데, 여성은 시장의 주요한 행위자였다(Kim, 2020).¹⁰⁾ 북한은 학생, 군인, 고령자 등을 제외하고 경제 활동이 가능한 주민들에게 일할 직장을 지정하여 배치하는 체계로(박영자 외, 2018, 21쪽), 배정된 직장에 출근하여 일하지 않는 경우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경제 위기 속에서 국가배급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각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정책도 확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일하며 경제 활동을 하였다(박성철, 2022; 박영자 외, 2018, 20쪽).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관리 감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특히 기혼여성은 집에서 부업을 하는 것이 용인되는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경제 활동은 여성들이 주를 이루었다(박영자 외, 2018). 김성경은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의 증가가 북한의 젠더화된 사회적 관계, 특히 가족 관계에 두드러진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생계부양자로서의 여성 역할 강화는 여성들이 경제적 독립을 기반으로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는 경향을 강화하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Kim, 2020).

다른 나라의 초국가적인 노동 이주와 마찬가지로, 북한 여성들의 초국가적 이주는 삶의 취약성을 줄이려는 기업가적 실천의 일부로 수행되어왔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북한 여성들이 초국가적 이주를 결심한 가장 주요한 동기는 가족들의 경제적 취약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고(김성경, 2023), 이들은 다른 나라로 이주한 후 지속적으로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정서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박성철, 2022; 임순화·성민주·이경현, 2022).¹¹⁾

10) 김성경(Kim, 2020)에 따르면, 공식적인 시장에서 20세 이상의 여성만이 상품을 파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러한 시장에서 일하는 기업가들의 수는 2016년 백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것은 전체 북한 여성 인구의 15%에 달한다.

3) 북한 이주 여성의 미디어 사용 연구하기

이 글은 초국가적 가족 실천과 미디어 사용에 관한 미디어 인류학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 여성 이주민이 어떻게 스마트폰을 매개로 초국가적 가족 실천을 수행하고 있는지 탐색한다. 이를 위해 당초 계획은 북-중 국경지역에서의 현지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특히 2018년 북-중 국경답사에서 방문하였던 중국 내 조선인 자치구역인 연길과 북한 이주 여성들이 많이 있는 단둥 지역에서 현지 조사를 수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연구를 시작한 후 얼마 안 되어 코로나 19-팬데믹으로 국경이 전면 폐쇄되며 현지 조사 수행이 불가능해졌다. 대신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집단 면담과 참여관찰을 수행하고자 했으나,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관련 기관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면서 북한 이주 여성을 만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북-중 국경답사에서 만난 두 명의 북한 이주민을 인터뷰하였고, 이들을 통해서 최근 입국한 북한 이주민을 소개받으려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러는 와중에 이전 연구에서 알게 된 지역 여성 지원 센터를 통해 북한 이주 여성을 소개받아서 세 명의 북한 여성 이주민의 이동전화 경험에 대한 파편적인 정보를 구할 수 있었다. 이들의 이동전화 사용 경험은 북한에서 거주했던 시기와 속해있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상이하였다. 이 글은 이 가운데 비공식 대화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후 간헐적인 안부 문자를 주고받으며 2년 정도 관계를 유지해 온 미영(가명)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북한 이주 여성을 연구하는 과정은 이들이 한국에서 마주하고 있는 취약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차원의 윤리적인 문제를 던져준다. 연구 윤리는 단순히 연구 동의를 구하는 절차만이 아니라, 연구에 참여하는 행위가 연구 참여자의 삶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광범위한 고려를 포괄한다(채석진, 2016). 특히 북한 이주민 연구는 이들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의 문제와 더불어 연구 참여가 이들의 일상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영은 인터뷰 초기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우려를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솔직히 북한에 가족이 없고 저 혼자라면 몰라도, 먹고 살려고 여기까지 왔지만 저 하나 때문에 가족까지...” 미영은 한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이만갑>(이제 만나러 갑니다)과 같은 북한 출신 이주민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그런 프로그램들을 북한에서도 다 보고 있다”며, 인터뷰를 하면 가족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많은 경우

11) 한국에 정착한 북한 이주민 가운데 북한에 송금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13년 이후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이지연, 2019, 222쪽), 2017년 이후에는 60% 이상이 송금을 하고 있었다(임순희 등, 2022).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년 평균 송금 횟수는 1.5회이고, 1회 평균 송금액은 401만원, 연간 총 송금액은 28,110만원이었다.

북한 이주민들은 북한을 회화화하거나 볼거리로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다. 미영에게 ‘인터뷰’라는 단어는 이러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름과 얼굴을 다 밝히고 북한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된 듯했다. 미영이 우려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자신의 안전보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신변에 대한 걱정이었다. 다행히 인터뷰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개인정보 삭제 등을 설명한 후 인터뷰와 녹음에 대한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인터뷰 질문은 대부분 이동전화 사용에 관한 것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나 감정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묻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한국에 들어온 미영이 입국한 이후에 여러차례 관련된 질문들을 받아왔을 것이라고 추측되었고, 인터뷰가 그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다. 당초 연구가 북한 스마트폰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인터뷰는 이동전화를 언제 사용하기 시작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대답을 듣고 관련 사항을 다시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질문 자체는 대단히 건조하고 단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영의 대답은 계속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로 되돌아가곤 하였다. 가족과 관련된 진술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더 상세하게 묻지 않으므로써, 미영이 가지고 있는 인터뷰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인터뷰를 마친 후, 미영에게 인터뷰 과정에서 진술한 것 가운데 걱정되는 것이 있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받은 후, 재차 인터뷰 자료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은 미영과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듯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미영은 자신이 별로 도움이 안된 것 같으며 북한에 있는 남동생에게 북한 스마트폰 사용에 관해서 물어봐주겠다고 제안을 해주었다. 미영의 제안은 북한 스마트폰이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거의 실시간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남동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진행하지 않았다. 인터뷰는 미영의 이동전화 사용에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와 이를 둘러싼 복합적인 상황 및 감정들을 보여주었다. 이는 연구자로 하여금 북한 이주민의 미디어 사용을 ‘초국가적 가족 실천’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이끌었다. 이 글은 미영의 스마트폰 사용을 그녀의 삶 속에서 맥락화함으로써, 미영을 정당하게 재현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3. 미영의 이야기: 스마트폰 딸노릇하기

미영(가명, 30대)은 2010년대 초반 북한을 나와서 중국에서 6년 정도 거주하다 일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다. 북한에 남겨두고 온 가족(부모님과 남동생)이 있고, 중국에 살면서 결혼한 남편이 있

다. 미영이 한국으로 이주해서 자리를 잡은 후 중국인 남편도 들어오려고 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경이 폐쇄되면서 못 오고 있었다. 미영은 한국에 들어온 후 돈을 벌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계속 거주지를 이동해 왔다. 인터뷰를 진행할 당시에는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에서 작은 다방을 운영하고 있었다.¹²⁾ 북한 출신 이주민 친구의 추천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다방은 오래된 낮은 건물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는 골목에 있었다. 터키 빵을 직접 구워 파는 가게, 중국 화교가 운영하는 식료품 가게,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의 물품들을 판매하는 가게, 환전소 등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보아 외국 이주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보였다. 미영의 가게는 골목 중간에 있는 허름한 건물 2층에 있었다. 건물 모퉁이 입구에 이어진 비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유리문 된 현관문이 나왔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10평 남짓의 공간에 1980년대 영화에 나올 듯한 다방의 모습이 펼쳐졌다. 가게 가장 안쪽에 주문대가 있었고, 그 안으로 작은 조리 공간이 보였다. 오른쪽 벽면을 따라 칸막이로 나누어진 좌석이 배치되고, 가운데 공간에 손님용 테이블 두 세트가 놓여있었다. 내가 들어서며 인사를 하자, 칸막이 제일 안쪽 좌석에 앉아 있던 미영이 일어서 맞이해주었다. 오전 시간이어서 그런지 가게 안에는 미영과 나, 그리고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만 있었다.¹³⁾

1) “가만가만” 휴대폰 사용하기: 기업가적 실천과 이동전화

북한에서 미영은 압록강을 사이로 중국을 마주하고 있는 국경 지역에 살았다. 미영은 그곳에서 학교 교육도 받았고, 사회에 나가서 10년 동안 직장을 다니며 연로하신 부모님과 학교 및 군대가 있던 남동생을 부양하였다. 직장에서 받는 임금으로는 생활이 안 되어 직장을 다니면서 옷장사를 포함한 다양한 장사를 하였다.¹⁴⁾

미영이 어릴 때 자랐던 곳은 강하고 가깝지 않았지만, 장사를 하면서 같이 일하는 “언니들”(동업자)을 따라 강 근처로 이사 가서 밀수 장사 시작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경 지역은 중국의 이동전화 서비스망이 도달하는 지역으로, 이러한 지리적인 근접성은 이동전화망이라는 기술적 근접성을 구축하며, 일종의 이동전화 공통 영토(communal territory)를 생성하였다.

12) 경기도는 북한 여성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보고서(안태윤·정요한, 2016)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북한 이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도 (27.7%), 서울 (25%), 인천(9.4%) 순이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전체 북한 출신 이주민 가운데 74.3%가 여성이었다.

13) 인터뷰를 한 이후 몇 달 지나지 않아 미영은 또 다른 도시로 이사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했던 공간에 대한 묘사는 미영이 거주하였던 지역의 공간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당시 미영이 거주하는 공간은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으로, 연구자가 이주민의 일부로 ‘북한이탈주민’을 인식하도록 이끌었다.

14) 북한 직장 월급은 미국 달러로 1달러로 낮은 임금은 시장에서 비공식적인 일자리의 활성화로 이어져왔다(박영자 외, 2018; Koen & Beom, 2020).



Figure 1. North Korean village seen from the Sino-Korean area (left)
 A view point to see North Korean villages (right) (Photos taken by the author, July 2018)

당시 미영은 밀수 장사를 위해 중고로 중국 휴대폰을 구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북한 당국은 중국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지만, 미영은 개인적 관계망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구하였다고 한다. 미영의 말로는 “북한에서 금지되어 있기는 해도 가만가만 파는 건 다 있다”고 한다.

제가 사용한 중국 핸드폰은 그냥 푹푹푹푹 누르는 옛날 핸드폰이었는데 제가 24살 25살 그때부터 썼어요. 저희 집은 문을 열면 압록강인거예요. 중국하고 이렇게 딱 붙어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그전으로부터도 쓰긴 했는데 내 거라고 당당하게 할 건 없었고 그냥 장사를 하자니까 할 수 없어 가지고 샀는데, 그것도 새것도 아니고 제가 장사를 같이 하는 언니한테 말한거예요. “언니 나도 아무래도 중국 핸드폰 하나 사야할 것 같아.” 그때 당시 중국돈 200원으로, 그때 당시 200원이면 많았어요. 그래도 장사를 해야 하니까 중국돈 200원에 사가지고 한 2년 넘게 사용하다가 여기 오기 전(탈북하기 전) 6개월까지 사용하다가 끊어버렸어요. 남한테 줬어요.”

미영의 진술이 보여주듯, 2000년대 후반에 중국 휴대전화는 적어도 국경지역에서는 흔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2000년대 후반에는 공식적으로 이집트 오라스콤과의 합자회사인 고려링크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북한 국내에서는 소수만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고, 국제 통화 서비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제공하고 있어서 북한 내국인들은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였다(Williams, 2019).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이동전화망 신호가 도달하는 국경 지역에서 중국 휴대폰은 중국과 북한 사이의 초국가적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쉽고

값싼 플랫폼이 되었다. 당시 중국 휴대폰은 중국과의 국경 무역을 하는 기업가적 실천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매체였고, 이러한 까닭에 북한에서 재판매하여 상당한 이윤을 낼 수 있는 물품으로 비공식적인 경제망을 통해 흔하게 유통되고 있었다.

개인이 자기가 쓰다가 (중고로 팔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냈는지 모르지만... 중국에 갔다 가져 왔을 수도 있고, 쓰다가 또 하나 더 생길 수도 있고, 동생이 중국에 다닐 수도 있고, 중국에 오면 그런 핸드폰 같은 거는 10원, 20원에... 저도 중국에 8년 전에 와보니까는 그런 핸드폰은 너무 널려 있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 있었던 10년 전 15년 전에는 중국에서 핸드폰 카드를 신분증이 없어도 너도나도 샀어요. 저도 그렇게 샀거든요. 제가 중국에 오기 1-2년 전부터는 핸드폰 카드를 사는 게 신분증이 필요해서 지금 사는 게 좀 힘들고, 그래도 만약 제 동생이 핸드폰 카드가 없다면 제가 중국에서 사서 보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중국에 가서 가지고 와서 쓰다가 선생님이 필요하다면 중국돈 100원에 팔 수도 있는 그런 율이 많지요.

미영의 진술은, 고립되고 강력하게 통제된 국가라는 북한에 대한 지배적 인식과 달리 북한 일반 사람들이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하여 일상적으로 중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중 국경지역은 오래된 친족망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교류가 지속되어 온 공간으로,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이러한 친족망을 기반으로 한 교류는 북한의 비공식적인 경제를 형성하는 가장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북한에서 비공식적인 경제는 오랫동안 기업가적 활동의 필수적인 부분이었고, 많은 부분 불법적인 것이었지만 광범위하게 용인되어온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기업 활동과 이동 전화 사용은 항시적으로 검문과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동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국의 검문을 피하기 위한 특수한 방식의 이동 전화 사용 방식이 형성되었는데, 미영은 이를 “가만가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미영은 밀수 장사를 하던 당시 “중국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걸리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단속을 피해서 “가만가만” 사용하는 것은 “문을 걸어놓고 쓴다거나 공공건물 같은데 숨어서 사용하거나, 누구랑 통화했다 하면 통화만 하고 배터리를 빼서 숨겨 놓았다가 또 어디 필요하면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꺼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 정부가 중국 휴대전화 신호를 감지하여 근방에 있는 집들을 불시 검문하는 것을 피해서였다.



Figure 2. Inside a tourist souvenir shop in the Sino-Korean area (left)
A sign for smuggling at the shop entrance (right) (Photos taken by the author, July 2018)

비공식적인 장사에 따르는 위험은 장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친밀함을 더욱 중요하게 만든 듯하다. 미영은 장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언니’, ‘친구’, ‘짜꿍’ 등의 친밀한 관계로 표현하였다. 신뢰와 친밀감 형성을 통해 구축하는 ‘확장된 가족’ 형태가 생존 전략으로 발전되어 작동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중국 휴대폰을 가지고 수행하는 기업가적 활동을 지원한다.

휴대폰 통신비는 중국에서 내죠. 우리가 북한에서 통신비를 물 수 없어요. 내가 이 핸드폰을 쓴다면 나는 북한에 있고 선생님은 중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둘은 친구, 친구면서요 장사 대방이에요. 짜꿍이나 같아요. 짜꿍이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내가 부탁하는 거를, 내가 ‘길림에 갔다 와서 여기에 갔다와라, 여기에 전화해라’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이 “북한에 어디 가서 누구를 데리고 와라” 이런 부탁을 다 들어주는 거지요. 그리고 일단 내 핸드폰이 교통비가 떨어지면 선생님이 넣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자처럼 거기에 한달에 100원이라면.. 근데 한국처럼 통화비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하고 나하고 전화만 하면 한국돈 7-8천원 정도면 얼마든지 충분하거든요. 근데 내가 북한에 앉아서도 한국에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도 할 수 있고 하면 100원, 200원정도 들면. 저도 일단 선생님이 제 전화번호를 알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넣어주고.

북한에서 미영의 이동전화 사용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딸로서의 역할 및 정체성과 긴

밀하게 연동하고 있다. 미영에게 ‘딸노릇하기’는 무엇보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군대에 가 있는 동생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었고, 이는 미영이 북한을 떠나 초국가적인 이주를 하기로 결정한 주요 이유였다. 밀수 무역 과정에서 축적한 정보와 관계망은 미영의 비공식적인 이주를 매개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2) 두 개의 스마트폰: “한국 전화기엔 북한은 없어요”

미영과 같이 비공식적인 경로로 이주한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에서 생존 전략으로 ‘중국 남성과의 결혼’이라는 또 다른 친밀한 가족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김성경, 2023).¹⁵⁾ 미영 또한 중국 남성과 결혼하여 남편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와 이동전화를 사용해서 중국에서 여러 가지 장사를 하였다. 미영이 중국에 거주하던 2010년대는 중국 경제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었던 시기였다. 미영은 “핸드폰 하나로 몇천 원 몇만 원어치 옷도 살 수 있고 별거 별거 다할 수 있었지만 어디에서 장사를 해도 신분이 없어서 당당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국적이라는 확실한 신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하였다.

한국으로의 이주는 법적인 신분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고 연락을 유지하는 데에는 더 많이 제약을 주었다. 남북한 간의 공식적인 방문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영에게 한국으로의 이주는 잠재적으로 가족들과의 영구적 분리를 의미한다. 이는 미영이 수행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딸노릇하기 사이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켰다. 카라와 위레드(Kara & Wred, 2022)가 지적하듯, 딸노릇하기의 주요한 부분은 나이든 부모에 대한 정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지원은 경제적 지원도 포함하는데, 미영이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까지의 초국가적 이주를 단행한 주요한 동기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생계부양자’로서의 딸노릇을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생계부양자로서의 딸노릇하기는 결과적으로 물리적으로 함께 살면서 일상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을 하는 딸노릇하기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왔다. 이러한 상황은 미영에게 딸노릇하기와 관련하여 복합적인 감정적이고 도덕적인 역동을 만들고 있는 듯했다. 더욱이 남북한 간의 공식적인 초국가적 커뮤니케이션 연결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으로의 이주는 북한에 물리적인 방문만이 아니라 매개 커뮤니케이션도 어려운 기술적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15) 김성경(2023)에 따르면, 북-중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이주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중국 농촌 남성과의 결혼을 알선하는 전문적인 중개 사업이 성행하고 있고, 북한 이주 여성은 이러한 중개 사업을 운영하는 주요한 기업가이기도 하다.

미영은 한국에 거주하며 마주하는 딸노릇하기를 둘러싼 모순과 충돌을 두 개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협상하며 다루고 있었다. 미영은 한국에서 남편 명의로 개통한 중국 스마트폰과 본인 명의로 개통한 한국 스마트폰 두 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두 개의 스마트폰은 다른 사회기술적 관계망에 연결되어 있다.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국 스마트폰은 중국에 있는 남편만이 아니라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연락하는 데 주로 사용한다. 또 다른 한국 스마트폰은 은행 업무와 온라인 쇼핑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업무에 사용한다. 한국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는 대부분 다른 북한 출신 이주민들과 장사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로, 한국에서 미영의 기업가적 실천을 구성하는 주요한 부분이다.

미영의 사례와 유사하게, 초국가적 이주 여성들의 미디어 사용에 관한 연구들은 많은 이주 여성들이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위해서 '세컨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마디아노우와 밀러(Madianou & Miller, 2011b)에 따르면, 영국에서 일하는 필리핀 이주 여성은 대부분 필리핀에 남아 있는 자녀들과 연락할 때 필리핀 휴대폰을 사용하였다. 이는 영국과 필리핀 간의 초국가적 커뮤니케이션 연결망의 비대칭성과 제약에 대한 대응이다. 영국과 필리핀 통신 서비스의 비용 격차, 영국과 필리핀 간의 시간 격차 등에 대응하여 엄마들은 필리핀 로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족들과 문자를 주고 받았다. 문자는 내용 자체보다 관계를 확인하는 행위이자, 돈을 보내고 받는 과정을 조율하는 기능을 하였다. 엄마들은 로밍한 필리핀 폰으로 자녀들의 문자를 받고, 영국 전화로 자녀에게 문자나 전화로 응답하였다. 로밍폰은 항상 켜둔 채 가족들의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두었고, 가입이 해지되지 않도록 매달 충전하였다. 엄마들은 문자로 전달하기 어려운 대화는 통화를 선호하였다.

미영 가족들의 초국가적 커뮤니케이션은 각자가 거주하는 나라의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망을 피해서 중국 이동전화망을 활용하여 수행되고 있었다. 이는 남북한 간의 초국가적 커뮤니케이션의 적대성과 비대칭성에 대응한 것이다. 스마트폰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국적을 가지고 있고,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끼리는 연결이 원활하지만 다른 국적을 가진 휴대전화 간에는 그렇지 않다. 이 점에서 휴대전화의 기술적 연결망은 국가라는 법적 영토를 초월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해당 국가의 영토성을 반영한다. 북한 초국가적 가족 실천은 이러한 특성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준다. 북한과 남한의 미디어 통신 기술은 각기 서로 호환이 어려운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이동통신망의 경우도, 남한과 북한은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기술 양식을 선택해서 발전시켰다. 북-중 국경 지역은 중국 이동 전화망이 도달하는 곳으로 법적인 국가 영토는 북한에 속하지만, 기술적인 영토는 중국에 걸쳐있다. 따라서 중국 휴대전화를 가지고 중국 이동 전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다. 미영은 자신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중국 휴대 전화로 다른 나라에 있는 사

람들과 연락했듯이, 북한에 남아 있는 남동생에게 중국 휴대전화를 마련해주어,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망을 구축하였다. 즉, 미영은 중국 이동전화 통신망을 활용하여 북한, 중국, 한국에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일종의 ‘공유된 사회적 필드’(Wilding, 2006)를 구축하였다.

미영의 남동생도 북한에서 두 개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미영이 북한을 떠난 이후 정부 당국이 제공하는 북한 스마트폰이 급속하게 확산하였고, 미영은 가족들이 북한 스마트폰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보내주었다. 군대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된 동생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북한 스마트폰과 미영이 별도로 마련해준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중국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미영이 밀수 장사를 할 때 중국 쪽 대방이 미영의 전화요금을 지불하였던 것처럼, 남동생의 중국 스마트폰 요금은 미영이 중국 스마트폰에 등록된 계좌로 지불하며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한국에서) 로밍으로 중국 휴대폰을 사용하는 게 돈이 많이 나가요. 한달에 통화비만 5만원정도. 통화만 안 하고 저녁에 문자도 하고 사진도 더러 보내고 이러니까는... 동생보고도 필요한 사진, 가족 사진 보내라 하면 보내주거든요. 사진이 돈이 많이 나가요. 거기다 동생 통화료도 내야하니까. (어떻게 통화료는 내나요?) 우리 동생이 이제 돈이 없을 것 같으면 넣어주죠. 한국에서는 넣기 힘들잖아요. 중국에서는 막 넣을 수 있거든요. 중국 핸드폰으로.. 저는 지금도 중국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도 사용하거든요. ... 우리가 카톡에 계좌이체를 하는 뱅크가 있는 것처럼 저는 중국 핸드폰에 뱅크를 다 입력해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도 한국 돈으로 얼마든지 중국 돈으로 바꿔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돈 10만원이면 환전소에 가서 바꾸면 은행카드에 57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몇 달 사용할 수 있지요.

미영이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 받는데 중국 로밍폰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이다. 초국가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이동전화를 매개로 연결성이 확산되는 경향을 강조해 온 반면, 이동전화를 매개로 확산되는 감시와 통제의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위성 통신으로 지역을 연결하는 이동전화는 근본적으로 감시 기능을 내재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위성을 통해서 국내 통신망이 아닌 해외 통신망을 사용하는 휴대폰을 추적하는 기술 감시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영의 진술에 따르면, 이러한 기술 감시와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북한에서 위성 같은 걸로 잡아요. 저는 북한에 있고 선생님은 중국에 있잖아요. 딱 통화를 열면 위성이 딱 와서 여기(위치)를 찍는 거예요. 그럼 바로 수색대가 5분내지 10분 안으로 기동대가 들어치는 거예요. 그렇게 잡히는 게 많은데. 아무리 수색대가 빠르다해도 5분 안에는 도착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되면 고 옆에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시간은 약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밖에도 내다보고 그러면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은 동생 집 같은 경우는 아파트니까 전번에도 수색대가 한번 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러는데 핸드폰은 일단 감춰놓고 와서 근거를 대라고 하는데. 지금은 발전되어서 메시지 문자까지 다 밝힌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북한이 발전되어가지고.(한숨) [...] 만약 단속에 걸리더라도 중국폰이면 용서가 되지만, 한국폰이 나오면 도저히 용서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족을 위해서 한국 핸드폰은 안 사용해요. 한국 핸드폰에는 북한이 없는 거예요.

3) 스마트폰 딸노릇하기: 제한된 연결성을 통한 친밀성 수행

기존 연구들은 연결과 접촉의 확산을 곧 친밀성의 확산으로 가정하지만 접촉의 증가가 곧 친밀성의 강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물리적 거리의 확대가 가족 관계에서 친밀감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예컨대, 마디아노우와 밀러(Madianou & Miller, 2011a)는 일상적인 대면 관계에서 애정 표현을 거의 안 하던 남성들이 멀리 떨어져 살며 편지로 가족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 시작한 사례를 보여준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면서 가족에 대한 관여와 지향성을 보여주는 행위를 발다사르(Baldassar, 2007)는 ‘원거리 생각하기’(distant thinking)라고 표현한다.

미영은 초국가적인 이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강한 친밀감을 지속하고 있었다. 북한을 나온 지 거의 십년이 되어감에도 여전히 딸로서의 강한 책임감과 더불어 가족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관계와 감정은 미영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남북한이라는 특수한 기술사회적 환경 속에서 미영은 가족과의 연락을 확장함으로써 가 아니라, 제한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친밀감을 수행하고 있는 점이다. 연락을 자주하는 것이 가족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영은 음성 통화를 선호하지만 통화 시간이 길어지면 북한에서 단속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문자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통화는 매일하고 싶는데 못하고 문자로 2-3일에 한번씩 하고. (통화는) 특이한 일 있을 적에나. 통화는 오래 못해요. 극상 길어야 5분? 저 같은 경우는 동생이 있으니 5분정도 가능하지 다른 집들은 1분 2분정도 밖에 못해요. 가만가만하다가도 들통나는 날에는 안 좋죠.

북한에서 미영이 중국 휴대폰을 사용할 때 그러했듯이, 남동생 또한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중국 스마트폰을 “가만 가만” 사용하고 있다. 미영은 메신저 앱 등은 사용하지 않고 문자 서비스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통화를 하고 싶을 때에는 문자로 미리 적절한 때를 조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금은 미영이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송금은 초국가적 가족 관계를 지속시키는 주요한 요소이다(Isaakyan & Triandafyllidou, 2017; McKay, 2007). 미영은 북한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왔다. 생활비는 가족들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와 생일이나 명절과 같은 특별한 때에 맞추어 보내고 있었다.

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장사를 못하시고, 남동생은 얼마 전까지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활비를 보내왔지요. 매달 보낸다면 거짓말이고, 그냥 3-4개월에 한번씩 100만원 내지 200만원. 그것도 계절을 따라가면서. 봄날에는 보릿고개니까 4월에 100만, 200만 보내는 거고. 가을이면 김장도 하고 겨울 화목을 준비하는 거예요. 북한은 대한민국처럼 전기가 뱅뱅 나오지 못하니까 겨울 화목을 준비하는 거예요. 계절에 맞춰서 김장도 하고 화목도 준비하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일이 있어서 보낸다면 아빠, 엄마 생일 적에 명절에 보내주고, 또 조금 힘들어하면 추석 같은 때. 추석은 대개 가을 김장철에 끼우면서 보낼 적에. 일년에 세번 내지 네번 보내주죠.

통신비와 같은 적은 금액은 미영이 중국 스마트폰으로 해결하지만, 북한 가족들의 생활비와 같이 액수가 큰 송금은 북-중 간 금융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진다. 송금을 한 이후에는 문자로 직접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데, 보통 하루 정도면 전달이 된다고 한다.

제가 여기서 한국 돈으로 보내거나 중국 돈으로 바꾸어서 중국에 있는 브로커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100만원을 보내겠다 하면, 환전소에서 바꾸면 중국돈으로 5700원이 되는거예요. 그것을 중국 브로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중국 브로커가 또 이자처럼 북한 브로커에게 보내는 거예요. 북한에도 돈장사하는 브로커들이 있거든요. 그 브로커들에게 주면 그럼 그 브로커가 우리집에 주지요. 나는 여기서 문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에 너한테 돈을 100만원을 바꿔서 5700원을 보냈으니까 확인해라 하면 동생이 다음날에 문자가 “오늘 받았어”하면 확인을 하는 거예요.

미영이 보낸 생활비는 가족들에게 양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하다.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지만, 미영이 부재한 상황에서 나아진 살림살이는 정부의 감시를 강화시킴으로써 삶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북한에서는 거주지를 벗어날 때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미영과 같이 가족 구성원이 장기간 안 보이는 경우 집중적인 감시의 대상이 된다.

이제는 북한에서도 저회집이 솔직히 공개가 된 거예요. 딸은 탈북했고 짐은 먹고 사는 게 생활적으로 괜찮고 하니까. 이진 딸에게서 돈이 와서 이렇게 사는구나 하니까 감시를 하는 거예요. 문자까지 다 밝혀가지고 저회집도 단속되어 가지고 그냥 그저 돈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만약 저는 엄마가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붙잡혔다면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보내서라도 엄마를 살리고자 하지 죽이려고는 안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돈을 500만원 내지 400만원을 보내면 또 나올 수도 있고. 결국을 사업을 하죠. 사업을 못하면, 만약의 경우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합의를 못하면 그냥 잡혀가야하는 거고.

미영의 진술은 북한에서 탈북한 딸이 있다고 추정되는 가구에 대한 이중적인 시선과 조치를 보여준다. 미영과 같이 비공식적인 노동 이주를 하여 송금을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전망이 있지만, 이러한 가구들은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공식적인 이주가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는 한, 이는 지역 관리자들에게 문제 삼지 않고 눈감아 주는 댕가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처럼 북한의 비공식 경제는 공식 경제의 외부 요소가 아니라 내부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그게 이자처럼 공개된 자본주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듯 저렇듯 명칭은 사회주의 국가로 나가고 있으니, 통제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같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북한에 돈을 안 보내주면 북한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통제해서는 자기네 그런 걸 하는 거죠. 통제할 바치면 끝까지 따라가서 연락을 못하게 하면 우리도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건승면승 이렇게 통제를 해서...

4. 나가며: 북한 초국가적 가족들의 친밀한 경제와 이동전화

이 글은 한 북한 출신 이주 여성의 경험을 통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주민들이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동안 북한의 미디어 사용에 관한 논의들은 북한 당국의 통제와 검열에 광범위하게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주로 강조해왔다. 미영의 이야기는 북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당국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를 우회하는 수많은 비공식적인 연결망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북한에서 비공식적 연결망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주요한 방식이었다. 2018년 참여한 북-중 국경지역 답사에서 만난 북한 이주민도 유사한 증언을 해주었다. 이 답사는 단둥부터 연길까지, 압록강에서 두만강을 끼고 형성되어 있는 국경지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강 건너 북한 땅을 보는 여정이었는데, 함께 참여했던 북한 출신 이주민은 자신이 어느 지점에서 강을 건너서 북한을 나왔는지 직접 설명해주기도 했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을 나온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군인에게 돈을 주고 자신이 건너는 시간에 보초를 서지 않도록 하고 강을 건넜다. 북한을 나온 이후에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계속 연락하며 나머지 가족도 나오려고 했으나 잘 안 되었다. 또 다른 북한 이주민은 중국에 있는 친척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다 강물이 불어 못돌아가고 있었는데, 친척이 남한행을 권유해서 그대로 한국으로 이주했고,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모두 데리고 나왔다. 이들이 보여주는 북한은 고립되고 통제된 나라라기보다, 이를 우회하는 수많은 비공식적인 연결망이 작동하고 있는 곳이었다. 비공식적 연결망은 주로 가족, 친구, 이웃 등의 친밀한 관계망을 기반으로 형성하거나, 모르는 사람이라도 서로의 호의를 봐주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작동해왔다.

미영의 진술은 북한 이주민들이 초국가적 이주 과정에서 이러한 비공식적 연결망을 확장하며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이동전화망은 미영이 세 국가의 영토를 가로질러 공통의 사회적 영토를 구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동전화를 통한 기술적 연결망은 물리적인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락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 북-중 국경이 폐쇄된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미영이 중국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구축한 초국가적 미디어 공간은, 여전히 이들이 거주하는 물리적 영토의 영향력 속에 있다. 이는 북한과 한국 사이에 구축되는 초국가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수성을 구성한다.

북한 이주민이 마주하는 특수성은 초국가적 가족 실천과 매개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이 제시해온 보편적인 가정들에 도전한다. 기존 연구들은 “2개 이상의 대륙에 장기간 공간적으로 떨어져 거주하는 가정 집단”(Vancea & Olivera, 2013, p. 184)을 초국가적 가족으로 정의한다. 다른 대륙에 거주하는 것은 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공간적 거리를 의미하고, 이는 장기간 떨어지는 시

간적 분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북한 이주민은 남북한 사이의 지리적인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교류가 법적으로 제한된 기술사회적 환경 속에서 심각한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마주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제약에 대응하며 중국을 경유한 비공식적인 초국가적 커뮤니케이션 연결망을 구축해왔다. 이는 서구 자본주의 체제의 공식적인 정보통신기술 연결망을 기반으로 구성되는 초국가적 가족 실천과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예컨대, 많은 문헌들은 스마트폰의 기술적 특성이 '상시 접촉'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정하지만, 이는 북한의 초국가적 가족들의 미디어 사용에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북한 초국가적 가족들에게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은 정부의 감시를 피하는 비공식적인 연결망의 확산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 감시의 확장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영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 잦은 연락이나 항시적 접촉이 아닌, 제한된 접촉을 통해 친밀성을 수행하고 있었다. 비정기적인 문자는 가족 관계의 소홀함이 아니라 가족의 안전을 염려하는 친밀함의 표현이자, 정부의 기술 감시를 피하는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다. 제한적인 문자는 내용과 상관없이 자신이 가족을 여전히 신경 쓰고 있음을 표시하는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

미영의 초국가적 가족 실천은 삶의 취약성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수행되어왔다. 미영은 가족들의 경제적 취약성을 줄이고자 초국가적 이주를 감행했지만, 이로 인하여 장기간 가족들 옆에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물리적 부재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 속에서 미영은 가족들에게 '빚진 주체'(indebted subject)(Lazzarato, 2012)로서의 인식을 형성하고 있었고, 스마트폰을 통해 가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이러한 부채감을 상쇄하고자 시도하고 있었다. 미영의 진술은 북한 출신 이주민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정서적 도덕적 역동이 비공식적인 송금을 매개로 한 북한 초국가적 가족들의 친밀한 경제를 구축하는 주요한 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References

- An, T., & Jung, Y. (2016). A study on the settlement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Gyeonggi Province. Gyeonggi-do Family Women Research Institute.
- Baldassar, L. (2007). Transnational families and aged care: The mobility of care and the migrancy of ageing.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3(2), 275-297.
- Baldassar, L. (2016). De-demonizing distance in mobile family lives: Co-presence, care circulation and polymedia as vibrant matter. *Global Networks*, 16(2), 145-163.
- Barry, A. (2013). The translation zone: Between actor-network theory an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41(3), 413-429.
- Castles, S., Miller, M. J., & Ammendola, G. (200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hae, S. J. (2016). Ethics in intimate ethnography : Researching the underemployed women. *Media & Society*, 24(3), 47-88.
- Choi, H. (2020). A study in identity negot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 women – Focusing on socio-structural aspects –. *Korean Unification Studies*, 24(2), 45-80.
- Choi, H. (2021). Social implications of North Korean migrants' remittance to North Korea.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14(3), 325-355.
- Collins, R. (2012). *Marked for life: SOUNGBUN, North Korea's social classification system*.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Draudt, D. (2022). *The changing role of entrepreneurs in Kim Jung Un's North Korea*. NCNK(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 Ehrenreich, B., & Hochschild, A. (Eds). (2003). *Global wome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New York: Metropolitan Books.
- Fang, A. H. (2016). *Connection denied: Restrictions on mobile phones and outside information in North Korea*. Amnesty International.
- Harvey, D. (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 Hochschild, A. R. (2000). Global care chains and emotional surplus value. In W. Hutton & A. Giddens (Eds.), *On the edge: Living with global capitalism* (pp. 130-146). London: Jonathan Cape.
- Horst, H., & Miller, D. (2005). From kinship to link-up: Cell phones and social networking in Jamaica.

Current Anthropology, 46(5), 755-778.

- Isaakyan, I., & Triandafyllidou, A. (2017). "Sending so much more than money": Exploring social remittances and transnational mobility. *Ethnic and Racial Studies*, 40(15), 2787-2805.
- Joung, E. (2017). North Korea's private system with North Korea-China economic ties – Informal remittance system in North Korea.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Economic Studies*, 29(4), 123-152.
- Kara, H., & Wrede, S. (2022). Love's Labour's lost? Separation as a constraint on displays of transnational daughterhood. *Sociology*, 56(3), 522-537.
- Kim, B. S. (2017).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wired and wireless communication services in North Korea.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Policies*, 29(10), 1-43.
- Kim, S. K. (2017). Mobile North Korean women and their distant motherhood : Reconstruction of intimacy and possibility of the sense of shame. *Korean Journal of Cultural Sociology*, 23, 265-309.
- Kim, S. K. (2020, October 21). North Korean women as new economic agents: Drivers and consequences. *Issue Brief*.
- Kim, S. K. (2023). *Women who have survived make the world*. Paju: Changbi.
- Kim, Y. (2014). *Cell phones in North Korea: Has North Korea entered the telecommunications revolution?* US-Korea Institute at SAIS.
- Kim, Y. (2019). *North Korea's mobile telecommunications and private transportation services in the Kim Jong-un era*. Insider, HRNK. Retrieved from 1/11/2023 <https://www.hrnkinsider.org/2019/01/north-koreas-mobile-telecommunications.html>
- Kim, Y. (2020). *North Korean phone money: Airtime transfers as a precursor to mobile payment system*.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 King-O'Riain, R. C. (2015). Emotional streaming and transconnectivity: Skype and emotion practices in transnational families in Ireland. *Global Networks*, 15(2), 256–273.
- Koen, V., & Beom, J. (2020). *North Korea: The last transition economy?*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 No. 1607). Paris, France: OECD.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cote=ECO/WKP/282020%2915&docLanguage=En>
- Latour, B.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zzarato, M. (2012). *The making of the indebted man*. Los Angeles: semiotext(e).
- Lee, J. Y. (2019). Performativity of North Korean migrants' family remittances and governmentality in the South-North Korean division. *Economy and Society*, 124, 221-254.

- Lim, S., Sung, M., & Lee, K. (2022). *The reality of economic and social inte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NKDB. Retrieved from <https://nkdb.org/publication/?idx=13518517&bmode=view>
- Madianou, M. (2016). Ambient co-presence: Transnational family practices in polymedia environments. *Global Networks*, 16(2), 183–201.
- Madianou, M., & Miller, D. (2011a). Crafting love: Letters and cassette tapes in transnational Filipino family communication. *South East Asia Research*, 19(2), 249-272.
- Madianou, M., & Miller, D. (2011b). Mobile phone parenting: Reconfiguring relationships between Filipina migrant mothers and their left-behind children. *New Media & Society*, 13(3), 457-470.
- Madianou, M., & Miller, D. (2013). *Migration and new media: Transnational families and polymedia*. London: Routledge.
- McKay, D. (2007). ‘Sending dollars shows feeling’: Emotions and economics in Filipino migration. *Mobilities*, 2(2): 175-194.
- Miller, D. (1987). *Material culture and mass consumption*. Oxford: Blackwell.
- Miller, D., & Slater, D. (2000). *The Internet: An ethnographic approach*. Oxford: Berg.
- Ministry of Unification (2022). Latest trend. Retrieved from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 Mun, S. M., & Jung, S. H. (2017). Dollarization in North Korea: Evidence from a survey of North Korean refugees. *East Asian Economic Review*, 21(1), 81-100.
- Park, S. (2022). *An analysis of North Korean defectors' remittance to North Korea*. Master's thesis,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Seoul, Korea.
- Park, Y., Cho, J., Hong, J., Jung, E., Jung, E.-M., Lee, S., ... & Kang, H. (2018). *Eight major changes in North Korea's economy and society in the Kim Jong-un era*.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Parrenas, R. (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Parrenas, R. (2005a). Long distance intimacy: Class, gender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in Filipino transnational families. *Global Networks*, 5(4), 317-336.
- Parrenas, R. (2005b). *Children of global migration: Transnational families and gendered wo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Vancea, M., & Olivera, N. (2013). E-migrant women in Catalonia: Mobile phone use and maintenance of family relationships. *Gender, Technology and Development*, 17(2), 179-203.
- Wilding, R. (2006). ‘Virtual’ intimacies? Families communicating across transnational contexts. *Global*

Networks, 6(2), 125-142.

Williams, M. (2019). *Digital trenches: North Korea's information counter-offensive*. HRNK(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illiams, M., & Schiess, N. (2022). *Project reveal_Reference section*. Retrieved January 2023 from <https://www.lumen.global/project-reveal>

You, P. (2020). *A study on the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remitta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최초 투고일 2023년 04월 14일

게재 확정일 2023년 05월 09일

논문 수정일 2023년 05월 31일

부록

- 김봉식 (2017). 북한 유무선 통신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29권 10호, 1-43.
- 김성경 (2017). 이동하는 북한 여성의 원거리 모성: 친밀성의 재구성과 수치심의 가능성. <문화와 사회>, 23권, 265-309.
- 김성경 (2023). 살아남은 여자들은 세계를 만든다. 파주: 창비.
- 박성철 (2022). <북한이탈주민 대북송금 분석>.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영자·조정아·홍제환·정은미·이석기·전영선·강호제 (2018).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사회 8대 변화> (KINU 정책연구시리즈 18-01). 서울: 통일연구원.
- 안태윤·정요한 (2016). <경기도 북한이탈여성 정착실태연구> (정책보고서 2016-16). 경기: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 유평원 (2020). 북한이탈주민의 대북 송금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연 (2019). 탈북민의 북한 가족 송금의 수행성과 분단 통치성. <경제와 사회>, 124호, 221-254.
- 임순희·성민주·이경현 (2022).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북한인권정보센터. <https://nkdb.org/publication/?idx=13518517&bmode=view>
- 정은미 (2017). 북중 간 비공식 송금 시스템의 생성과 발전: 탈북자 송금을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29권 4호, 123-152.
- 채석진 (2016). 친밀한 민속지학의 윤리. <언론과 사회>, 24권 3호, 47-88.
- 최희 (2020). 북한이탈여성들의 정체성 협상 -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 <통일연구>, 24권 2호, 45-80.
- 최희 (2021).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송금의 사회적 의미. <다문화사회연구>, 14권 3호, 325-355.
- 통일부 (2022). 최신동향. Retrieved from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스마트폰 딸노릇하기 북한 초국가적 가족 실천과 이동전화

채석진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이 논문은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 출신 이주민들이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탐사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이주민의 스마트폰 사용을 이주로 파생되는 가족 분리와 초국가적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심화된 노동의 국제적 분업과 이주의 여성화 과정은 저개발국가에서 광범위한 가족 분리 현상으로 이어지며, 수많은 초국가적 가족을 만들어왔다. 오랜 기간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받아 온 북한에서도 가족 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여 보내주는 임금이 주요한 경제적 자원이 되어왔다. 한국은 북한 이주 노동자들의 주요한 도착지로, 많은 북한 이주민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생활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북한 출신 이주민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초국가적 가족 실천과 초국가적 커뮤니케이션의 부분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초국가적 가족 실천과 미디어 사용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들의 논의를 살펴보고, 북한 여성 이주민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한 북한 여성 이주민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스마트폰을 매개로 수행되고 있는 초국가적 가족 실천의 속성과 양식을 탐색한다. 이 과정에서 이 글은 그동안 ‘엄마노릇하기’를 중심으로 진행된 초국가적 가족 실천 연구 경향 속에서 간과되었던 ‘딸노릇하기’를 드러내고, 언어적·정서적 교환만이 아니라 경제적 교환을 주요한 초국가적 가족 실천으로 조명한다. 북한 초국가적 가족들에게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확장은 공식적인 통신망의 제약을 넘어서는 비공식적인 연결망의 확산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과정에 관한 기술적 감시의 확장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이 속에서 북한 이주 여성은 생계부양자로서의 딸노릇을 하기 위해 감행한 초국가적 이주가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돌봄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모순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을 스마트폰을 매개로 딸노릇하기를 수행하며 협상하고 있었다.

핵심어 : 스마트폰, 초국가적 가족, 초국가적 커뮤니케이션, 북한 이주 여성, 딸노릇하기